

“지난해 어려움 딛고 소망 이루는 새해 됐으면”

병오년 첫 날 국토 끝 해남 땅끝 해맞이객들 만나보니

영하권 칼바람 속 가족·연인·친구 등 1만3000명 ‘복적’
건강·행복·학업·일자리 등 각자의 소망 담아 새해 기원

“우리 모두에게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붉은 말의 해’인 병오(丙午)년 첫 날의 해가 떠오르는 1일 오전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 ‘땅끝전망대’에는 해돋이를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오전 6시부터 주차장에 모여 전망대로 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해맞이객들은 영하 6도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두꺼운 외투와 모자, 목도리, 담요 등으로 몸을 감싼 채 들뜬 모습이었다.

셔틀버스를 5분여 타고 바다가 보이는 땅끝마을에 도착하자, 해맞이객들은 셀카봉에 영상을 담고 소중한 사람들과 바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다가도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새해 첫 일출을 기다렸다.

오전 7시 20분께, 동쪽 수평선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이날 7시 40분께 새해 첫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빛이 하늘 가득 퍼지자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어올린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과 환호성이 터졌다. 함께 온 가족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며 인사를 건네고, 멀리있는 이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해가 손을 흔들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두 개의 바위섬 ‘뱀섬’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어 ‘해맞이 명소’로 꼽히는 땅끝마을 갈두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뱀섬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연신 셔터를 눌러대던 해맞이객들은 함께 온 가족, 연인, 친구들을 끌어안으며 서로의 행복을 기원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이날 뱀섬 일대와 땅끝전망대, 땅끝스카이워크, 땅끝탑 등 해남군 일대에는 총 1만 3000여명의 해맞이객이 몰려들었다.

해남군을 찾은 해맞이객들은 지난 2025년이 다

사다난했던 만큼, 무탈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 각종 재난과 사건들, 끝 모를 불경기 등으로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성교를 이루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해남에 사는 손동수(58)씨는 “제작년말 계엄이 선포되면서 국민들이 힘들었고, 하물며 나처럼 농사짓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지경이었다”며 “2026년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해맞이객들이 저마다 새해를 바라보며 비는 소원은 달랐지만, 자신뿐 아니라 가족, 이웃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서 온 결혼 2년차 정기봉(40)·이윤지(여·37) 부부는 “임신 5주차라 올해 태어날 아이가 가장 큰 선물이다”다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목포, 보성 등지에서 해돋이를 즐겼던 김성현(33) 황지수(여·31)씨는 막내 딸이 어려 3년만에 해돋이를 보러 왔다. 김 씨는 “아이들과 어젯밤 11시쯤 와서 불꽃놀이도 보고 해님이 행사를 즐겼다. 리후, 리아 남매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가족 건강을 빌었다. 또 “자영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든 잘 버텨야지 하며 흘려간 한해였다. 올해는 경제도 회복되고 하는 일도 잘 풀리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리후(7)군도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장난감도 갖고 싶다”고 웃었다.



1일 해남군 땅끝마을 전망대에 모인 해맞이객들이 새해 일출을 보고 있다.

새해를 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임성준(31·인천)씨는 “인천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올해 이직하게 돼 오는 28일부터 전주로 첫 출근을 한다. 새로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고 싶다”고 소망했다. 함께 온 여행 메이트 김은주(여·30·서울)씨도 “지난 한 해는 버티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 경험을 자양분삼아 승진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광 해룡동 동창인 박하음(20) 송간(20) 김태현(20) 송지호(여·20)씨는 한마음 한 뜻으로 소원을 빌며 친구들끼리 특별한 새해 첫 날을 보냈다. 특히 김씨는 “올해 재수해서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새해 기운을 받아 올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해남=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해남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



2026년 병오년(丙午年) 첫날인 1일 오전 광주시 남구 진월동 금당산 정상에서 시민들이 붉게 떠오르는 새해 첫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눈 내리고 강추위 지속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리겠다고 1일 밝혔다.

2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10~영하4도, 낮최고기온은 영하1~3도로 종일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3일도 아침최저기온은 영하8~0도, 낮최고기

온은 5~8도에 머물겠으며, 4일부터는 중국 상하이 부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아침최저기온은 영하3~3도, 낮최고기온은 7~10도로 오르겠다.

눈은 2일까지 광주·전남서부에 3~8cm, 전남 서해안의 경우 많게는 10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에는 광주와 전남 서부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3cm, 일부 서해안에서 시간당 5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한파에 전남 양식장 비상... 저수온 ‘주의’ 단계

최근 한파로 전남 지역 해안에 저수온 위기경보가 내려지면서 양식장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1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서해, 남해 해안에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단계, 심각 2단계 등 5가지 단계로 나뉜다.

이런 경보는 국립수산물과학원(수과원)이 같은 날 오후 2시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서해와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남 해안에서 저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된 지역은 함평만, 도암만, 등량만, 여주만, 가막만 등 5 곳이다.

수과원의 저수온 예비주의보는 수온이 7도까지 떨어졌을 때 내려진다. 현재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 수온은 6~9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화정아이파크 참사 유가족, 5~11일 추모기간

광주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는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추모 기간을 설정하고 산업현장 안전 관리, 공공기관과 가해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추모사업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광주시와 서구청에게는 현대산업개발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회 측은 올해 현대산업개발이 ‘더 이상 추

모식 개최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라 4주기 추모식을 열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는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 서구청, 광주 시청, 광주대표도서관 사고현장, 5·18민주광장 등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고 당일인 11일에는 화정아이파크 6게이트앞 도로에서 4주기 추모식이 진행된다. 추모식에서는 현대산업개발 규탄대회, 광주정치권 규탄대회, 계도 행진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외면받은 광주·전남 공공앱 폐기 권고

행안부, ‘으뜸효남구 안심동행’ 등 6개 포함 전국 57개

광주·전남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앱’ 중 6개가 연간 다운로드 수가 10건을 못 넘기는 등 처참한 성과를 보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앱을 ‘폐기’할 것을 권고받았다.

행안부는 지난 30일 전국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앱 품질을 제고하고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누적 다운로드 수, 기관 관리노력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받으면, ‘유지’, 60~70점을 받으면 ‘개선 권고’, 60점 미만을 받으면 ‘폐기 권고’를 받는다.

평가 결과 전국 57개 앱이 폐기 권고(9.4%)를 받

았으며, 이 중 광주·전남에서만 6개 앱이 포함됐다.

광주시 남구가 지난 2022년 만든 ‘으뜸효남구 안심동행’ 앱은 지난해 총 다운로드 수가 2건에 불과해 폐기 권고를 받았다. 최근 3년간 다운로드 수를 합쳐도 107건 뿐이었으며, 업데이트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최신 업데이트 일자가 앱 출시 전인 2021년도로 돼 있었다.

또 광주시의 ‘타랑개’ 앱은 2024년 다운로드 수 1만 8381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가동을 안 해 0건이었으며 업데이트도 이뤄지지 않았다.

광양시가 운영 중인 ‘광양시 내손안심벨’ 앱은 202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최근 3년간 28건 다운로드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다운로드 건수도 8건에 머물렀다.

순천시의 ‘순천시립도서관’ (지난해 다운로드 2541건) 앱은 최신 업데이트 일자가 5년 전인 2020년 3월로 돼 있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 순천시 ‘순천만국립정원’ (24건), 전남도 ‘전남도립미술관’ (73건) 등 앱이 폐기 대상에 올랐다.

한편 광주시 남구의 ‘광주 남구랑’과 ‘광주남구 주차정보안내’, 서구 ‘내손에 세운대 서구’,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광산시민행복주차장’ 등 4개 앱은 ‘개선’ 권고를 받았다. 전남에서도 전남도 ‘전남도립대학교 모바일 학생증’·‘전남바다알리미’, 무안군 ‘무안질주’·‘스마트 무안군 오송우미술관’, 여수시 ‘여수시청’, 영암군 ‘영암e랑’, 화순군 ‘화순팜’ 등 7개 앱이 개선 권고 목록에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필요한 앱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